

간호원의 역할인식과 환자의 기대

—기본 간호역할의 가치의식을 중심으로—

한 윤 복 · 김 순 자 · 이 인 자

<가톨릭 의과대학 간호학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목 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 A. 조사대상
- B. 재료 및 방법
- C. 자료의 분석
- D. 용어의 정의

III. 결 과

- A.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
- B. 간호역할에 대한 의견척도 및 Ns자신의 인식과 Pt의 기대와의 관계
- C. 각 문항별 평균의견척도의 순위
- D. 전체간호제도에 따르는 신체적 안위 영역과 학력별로 본 Ns의 사회심리간호 영역의 평균의견척도
- E. 불합치도의 분포와 범위

IV. 논 의

V. 결 론

참고 문헌

영문 초록

I. 서 론

서구의 현대간호와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사회가치관에 따른 우리의 간호는 그 직업관에 있어 많은 차질을 가져와 간호사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화 내지 토착화의 간호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성급히 해결해야 할 간호의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1973)는 전통과 문화가 전혀 다른 풍토에 심어진 서구식 병원은 환자와 일반인에게 공포의 대상과 이질적인 존재로 되어 있어 병원중심의 간호체제는 그 간호 이념을 완전히 소화시키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모방에 치우쳐서 간호이념과 가치관을 확립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Abdellah (1967)는 환자본위의 간호방침이 아니면 간호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진료나 의사중심의 병원조직상의 계층문제로 인해 환자는 질적간호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간호원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직접 환자간호와 관계가 적은 간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전문직 간호의 무용론이 나오게 됨을 지적한 바 있다.

간호원의 업무는 부상자 또는 해산부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간호의 독자성이나 다른 전문직과의 역할에 대한 환자, 의사, 일반대중의 기대와 간호원 자신의 역할인식 [Abdellah와 Levine, 1958; whiting, 과 방, 1970; 김 1973; 이와 whiting, 1958]은 아직도 그 확고한 이념이 서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에게 주어지는 간호행위는 환자욕구의 이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간호원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치우치기 쉬우며 환자 자신의 복지와 건강회복의 필요에 따라 받아 드리는 태도가 다르다.

현 병원제도로 보아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호원 자신들은 기본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가 항상 환자곁에 있기를 원하고 있어(김; 1973) 이대로 나간다면 간호원의 역할은 독자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른 간호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아 포괄적인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원 자신의 역할인식과 환자의 역할기대간의 바람직한 조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간호원과 환자는 각각 선택된 임상간호역할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히며 신체안위 간호, 사회심리 간호, 관찰과 조절 및 치료의 4개 영역의 간호역할중 간호원의 역할 인식은 어느 영역에서 더욱 환자의 기대에 가까우며 어느 영역에서 가장 의견척도가 높은지를 규명하여 간호계획과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얻음으로 일

상간호 지도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했다.

1. 간호원은 신체적 안위영역의 간호 역할 인식이 환자의 기대보다 높을 것이며, 양집단와 평균 의견척도는 보통일 것이다. 그리고 양집단에서 문항별 의견척도가 큰 차이가 나게 높은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2. 간호원의 관찰 및 조절 영역의 역할인식은 환자의 역할 기대보다 높을 것이며, 양집단의 평균 의견척도는 비교적 높을 것이다.
3. 간호원의 심리간호 영역의 역할인식은 환자의 기대보다 높을 것이며 간호원의 평균 의견척도는 비교적 높은편일 것이다. 그리고 양집단에서 평균 의견척도가 아주 낮은 문항은 별로 없을 것이다.
4. 간호원의 치료영역의 간호역할의 인식은 환자의 기대와 일치 할 것이며 양집단의 의견척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5. 전체 간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특정병원의 신체적 안위간호에 대한 간호원의 역할인식은 환자의 역할 기대와 일치 할 것이며 양집단의 평균 의견척도는 비교적 높을 것이다.
6. 대학졸업 간호원은 전문학교 졸업 간호원보다 심리간호에 대한 의견척도가 높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A. 조사 대상

1973년 7월 부터 1973년 12월에 걸쳐 6개월 동안 서울시내 11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3일 이상 지난 성인환자 203명과 대상환자를 직접간호한 자격 간호원

〈표 1.〉 조사대상

	Ns(N=203)	Tt.(N=203)
우 석 병 원	24	24
적 십 자 병 원	23	23
성 심 병 원	10	10
성 모 병 원	34	34
국 립 의 료 원	33	33
한 양 대 학 병 원	23	23
성 바 오 르 병 원	7	7
시 립 서 대 문 병 원	10	10
고 려 병 원	10	10
경 회 의 료 원	19	19
동 산 병 원	10	10
합 계	203	203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1>

중증환자, 수술후 24시간 이내 환자, 입원후, 12주 이상의 환자는 모두 제외 하였다.

B. 재료 및 방법

67개의 일상 간호역할을 문항으로 한 질문지를 사용했으며 문항은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신체적 안위간호	22문항
관찰 및 조절	16문항
사회심리 간호	19문항
치 료	10문항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Likert type의 의견척도 측정방법에 의해 등위식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즉,

"가장 중요하다"	5점
"대단히 중요하다"	4점
"보통 중요하다"	3점
"약간 중요하다"	2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1점
"해당되지 않는다"	0점

의 여섯 단계로 나누어 해당란에 (V)로 표기하게 했다.

환자는 간호역할의 각 문항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도를 표시하게 하고, 간호원은 문항의 일반 간호 개념에 집착됨이 없이 대상환자에게 요구되는 간호를 중심으로 표기하게 하였고 환자 1명에 한하여 응답케 하였다. halo effect를 배제하기 위해 4개 간호영역의 문항을 고루 혼합시켜 질문지를 작성 표지하였다.

C. 자료의 분석

1. 간호원과 환자의 일반적 배경에 대해서는 백분위빈도 측정을 하였다.

2. 각 문항에 대하여는 등위식에 의한 6단계의 점수를 각각 응답수로 곱하고 그의 총점수를 표집수로 나누는 수치를 평균 의견척도(mean value score)로 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 하였다.

의견척도 3.5 이상	매우 높다.
" 3.0~3.49	비교적 높다.
" 2.5~2.99	보통이다.
" 2.0~2.49	비교적 낮다.
" 1.99 이하	매우 낮다.

3. 양집단의 간호영역별 의견척도 차의 유의성을 t점검 하였다.

4. 간호 영역별 의견불합치도(disagreement score)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별 환자의 67개 문항의 총점에서 담당 간호원의 총점을 뺀 다음 그 차이를 +, -로

표시 하는 도(fig)로 작성하였다. (+는 환자가 더 중요시 하고 있는것, -는 간호원이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

D. 용어의 정의

1. 신체적 안위간호

간호의 기본원칙에 따르는 독자적 간호역할로서 환자의 개인위생, 신체적인 안전보장, 예방의 간호역할.

2. 관찰 및 조절

질병과정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간호원이 통제할 수 있는 간호역할.

3. 사회심리 간호

사회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을 말하며 병원환경에 적응 하도록 돕는 의사소통, 불안 제거, 원만한 대인관계를 포함한 순수한 독자적인 간호역할.

4. 치 료

의사처방에 의해 간호원에게 전적으로 위임되는 진료보조업무 역할로서 과학적 원리와 지식, 능숙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호역할.

5. Ns.....조사대상의 간호원.

Pt.....조사대상의 환자.

III. 결 과

A.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

1. 간호원의 연령별 분포(표 2)는 25세 미만이 170명(83.8%)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 경력(표 3)은 2년 미만이 154명(75.9%), 3년 이상이 49명(24.1%)이었다. 교육적 배경(표 4)은 대학이 60명(29.6%) 간호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 기타가 143명(70.4%)이었다.

〈표 2.〉 Ns의 연령별 분포

	N	%	누적율
20세 미만	3	1.5	1.5
21~25 세	167	82.3	83.8
26~30 세	23	11.3	95.1
31~35 세	8	3.9	99.0
36~40 세	2	1.0	100.0
합 계	203	100.0	

〈표 3.〉 Ns의 경력별 분포

	N	%	누적율
1년 미만	94	46.3	46.3
1~2년	60	29.6	75.9
2~3년	32	15.8	91.7
3~5년	10	4.9	96.6
5~10년	5	2.4	99.0
10~15년	2	1.0	100.0
합 계	203	100.0	

〈표 4.〉 Ns의 교육적 배경

	N	%
대 학	60	29.6
간호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	131	64.5
기 타	12	5.9
합 계	203	100.0

2. Pt.의 연령별 분포는(표 5) 25~30세군이 40명(20.7%)으로 가장 많고 16~45세가 169명(83.3%)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질환별 분류(표 6)는 근육 골격계 49명(24.1%)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 36명(17.8%), 순환기계 30명(14.8%), 부인과계 23명(11.3%), 호흡기계 22명(10.8%), 신경계 19명(9.4%)의 순위였다. 조사 당일 까지의 입원 일수(표 7)는 4주 이하가 126명(61.7%)이고 8주 이상이

〈표 5.〉 pt.의 연령별 분포

	남		여		합계		누적율
	N	%	N	%	N	%	
16~20	27	21.3	6	7.9	33	16.3	16.3
21~25	16	12.6	16	21.1	32	15.8	32.1
26~30	25	19.7	17	22.4	42	20.7	52.8
31~35	22	17.3	8	10.6	30	14.8	67.6
36~40	13	10.2	7	9.1	20	9.8	77.4
41~45	5	3.9	7	9.1	12	5.9	83.3
46~50	10	7.9	5	6.6	15	7.4	90.7
51~55	5	3.9	5	6.6	10	4.9	95.6
56~60	4	3.2			4	2.0	97.6
60세 이상			5	6.6	5	2.4	100.0
합 계	127	100.0	76	100.0	203	100.0	

<표 6.> Pt.의 질환별 분류

	N	%
근육골격계 질환	49	24.1
소화기계 질환	36	17.8
순환기계 질환	30	14.8
부인관계 질환	23	11.3
호흡기계 질환	22	10.8
신경계 질환	19	9.4
비뇨기계 질환	11	5.4
담도계 질환	11	5.4
합 계	203	100.0

<표 7.> Pt.의 조사당일까지의 입원일수(입원기간)

	N	%	누적율
1주 이하	28	13.8	13.8
1~2 주	45	22.2	36.0
2~3 주	36	17.3	53.3
3~4 주	17	8.4	61.7
4~5 주	13	6.4	68.1
5~6 주	9	4.4	72.5
6~7 주	7	3.5	76.0
7~8 주	7	3.5	79.5
8~9 주	7	3.5	83.0
9~12주	34	16.8	99.8
합 계	203	100.0	

<표 8.> 조사 당일까지의 담당 간호일수

	N	%	누적율
1주이하	38	18.7	18.7
1~2 주	48	23.6	42.3
2~3 주	45	22.2	64.5
3~4 주	12	5.9	70.4
4~5 주	16	7.8	78.2
5~6 주	4	2.0	80.2
6~7 주	6	3.0	83.2
7~8 주	9	4.4	87.6
8~9 주	6	3.0	90.6
9~12주	19	9.4	100.0
합 계	203	100.0	

41명(20.3%)이었으며 담당 간호원의 간호 일수(표 8)는 4주 이하가 143명(70.4%), 8주 이상이 26명(12.4%)이었다.

교육정도(표 9)는 고등학교 이상이 154명(75.8%)

<표 9.> Pt.의 교육정도

	N	%	누적율
대 학 이 상	80	39.4	39.4
고 등 학 교	74	36.4	75.8
중 학 교	29	14.3	90.0
국 민 학 교	5	2.5	92.6
기 타	15	7.4	100.0
합 계	203	100.0	

<표 10.> Ns.와 Pt. 집단 의 신체적 안위 간호역할의 의견척도

문 항 번 호	간 호 역 할	Mean value score	
		Ns.	Pt.
1	몸청결(세수 목욕)에 힘쓴다.	2.73	2.35
5	햇이불과 잠옷을 자주 바꾸어 준다.	2.88	3.15
8	등 「맞싸—지」를 자주하여 시원하게 해준다.	2.47	1.65
12	체위변경(몸가짐)으로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3.32	2.65
16	병실내의 정돈정리에 힘쓴다.	2.68	2.47
19	환자 자신이 일어나 움직이도록 권유한다.	3.06	2.53
23	자주 베크를 만져주고 편안하게 눕혀준다.	2.67	2.03
27	번거를 준비하여 편리한 곳에 놓아준다.	2.74	2.27
30	침상에서 일어날 때와 누울때 잘 도와준다.	2.57	1.93
34	신체 각 부분의 필요한 운동을 하도록 설명하고 돕는다.	3.41	3.04
37	식사를 잘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2.92	2.42

40	특별한 경우 (투약이나 치료)가 아니면 잠자는 환자를 깨우지 않는다.	3.02	2.99
44	구강 위생(양치)에 관심을 둔다.	2.95	2.87
47	손톱·발톱·머리·면도 등 용의 단정하도록 도와준다.	2.51	2.14
51	병실에서 일상 필요한 물품(수건·비누·휴지·물잔)을 챙겨준다.	2.35	2.17
54	실내온도와 환기조절 (통풍)에 힘쓴다.	3.08	2.69
58	식수(물)와 간식 공급을 적절히 해준다.	2.33	2.33
59	환자를 운반할때 끔게 다룬다.	3.28	2.64
61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고려한다.	3.14	3.57
62	팔·다리·허리가 배기지 않도록 베틀과 콧손을 잘 이용해 편히 해 준다.	3.46	2.93
66	옷 바꾸어 입는 일을 잘 도와 준다.	2.02	1.60
55	환자가 충분한 휴식을 갖도록 방문객을 제한한다.	2.97	2.45
		Mean =	2.84 2.49
		S. D =	0.374 0.450
			t=2.800
			p<0.01

<표 11.> Ns.와 Pt. 집단의 관찰과 조절에 대한 간호역할의 의견척도

문항 번호	간 호 역 할	Mean value score	
		Ns.	Pt.
2	체온, 맥박, 호흡 및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3.92	3.97
6	수시로 피로움을 관찰하고 곧 의사에게 보고 해 준다.	3.85	4.07
9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은 다음 결과를 알아본다.	3.61	3.10
13	병상기록(charting)을 정확하게 한다.	4.42	4.00
17	대·소변 배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쓴다.	3.31	3.01
20	정맥 주사를 맞을 때 꼭 지켜본다.	2.64	2.60
24	수술실이나 엑스선과에 보낼때 준비가 잘 됐는지 철저히 본다.	3.81	3.49
28	환자가 피로움을 말하기 전에 미리 판단해서 간호해 준다.	3.29	2.95
31	상처에 덮인 붕대를 자주 살펴본다.	3.23	2.43
35	음식 섭취량과 배설량을 정확하게 관찰 기록한다.	3.75	3.12
38	근무 교체시는 환자 상태를 먼저 파악한다.	4.16	3.75
41	환자의 환경변화(가정에서 병원에 옮기게 된)에서 오는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	3.15	2.62
45	개인의 기호(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를 생각해 준다.	2.39	1.94
48	병원 음식에 잘 적응하는지를 관찰한다.	3.28	3.19
52	병리 검사 결과를 잘 알아 이해 시켜준다.	2.97	3.33
63	의사가 진찰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돕는다.	3.24	3.45
		Mean =	3.44 3.19
		S. D =	0.552 0.592
			t=1.238
			p>0.05

보호자와 함께 있는 환자 119 명 (58.6%), 수술후 Pt. 124명 (61.1%), 기독교, 불교신도100 명이(49.3%)였다.

B. 간호역할에 대한 의견척도 및 Ns. 자신의 인식

파 Pt.의 기대와의 관계.

1. 신체적 안위 간호영역의 평균 의견척도는 Ns. 2.84,로 보통수준이고 Pt. 2.49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

의 반응을 보였고 Ns.의 역할인식과 Pt.의 역할기대와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t=2.800, p<0.01$)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관찰 및 조절 영역 (표 11)에 있어 평균 의견척도는 Ns. 3.44, Pt. 3.1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Ns.의 역할인식과 Pt.의 역할 기대와는 차이가 없었다.

($t=1.238, p>0.05$)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사회심리 간호영역에 관한 의견척도는 Ns. 2.71, Pt. 2.51로 보통 수준이며 Ns.의 역할 인식과 Pt.의 역할 기대와는 차의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가설 3은 부분적으로 부정되고 있다($t=0.758, p>0.05$).

<표 12.> Ns. 와 Pt. 집단의 사회심리 간호역할에 대한 평균 의견척도

문항 번호	간 호 역 할	Mean value score	
		Ns.	Pt.
3	치료 받을때 병풍으로 가리어 준다.	2.36	1.85
7	입원할 시 환자나 보호자와 인사를 나눈다.	2.42	2.32
10	입원 수술 절차를 잘 도와준다.	1.94	2.44
14	검사와 치료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고 협조해 준다.	3.74	3.49
11	간호의 순서를 미리 설명해 준다.	2.69	2.15
18	마취에서 깨어날 때 옆에서 도와 준다.	2.88	3.02
21	개인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는 관심을 보인다. (가정문제, 습관)	2.39	1.79
25	환자가 하는 말을 주의깊게 들어 준다.	3.64	3.62
29	시사, 취미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2.19	1.98
32	개인의 종교를 존중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한다.	2.22	1.50
35	증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적절한 설명을 하여 안심시킨다.	3.72	3.61
39	항상 미소로 대해 준다.	3.51	3.79
42	언제나 친절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인다.	3.87	3.93
46	병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적당한 오락이나 게임을 마련해 준다.	2.29	1.93
49	신경질이나 엄살을 잘 받아 준다.	1.59	1.65
53	땀 손질을 잘해 준다.	1.83	1.44
56	환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표현하게 한다.	3.52	3.31
60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여가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2.56	2.49
64	전체 오락에 참여 하게 해 준다.	2.05	1.45
		Mean=	2.71 2.51
		S. D =	0.720 0.909
			t=0.758
			p>0.05

4. 치료영역에 대한 평균 의견척도 (표 13)는 Ns. 3.56으로 매우 높고 Pt. 3.4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양집단간의 역할인식과 기대간에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C. 각 문항별 평균 의견척도의 순위

1. Ns.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별 평균치의 순위 (표 14)를 보면 평균 의견척도 3.5 이상의 18개 문항중 관찰 및 조절영역이 7개 문항, 심리 간호영역이 6개 문항, 치료영역이 5개 문항이며 그 순위는

<표 13.>

Ns.와 Pt. 집단의 치료에 대한 간호역할의 의견척도

문항 번호	간호역할	Mean value score		
		Ns.	Pt.	
4	투약을 정확하게 한다.	4.47	4.53	
15	주사를 덜 아프게 잘 놓는다.	3.03	2.91	
22	상처의 치료를 아프지 않게 하도록 한다.	2.63	2.52	
26	무균법(철저한 소독법)을 엄중하게 다룬다.	4.40	3.86	
33	의사의 처방(지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한다.	4.46	4.38	
43	치료방법을 그때그때 설명해 준다.	3.32	3.09	
50	퇴원후의 치료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3.60	3.84	
57	새로운 치료와 간호방법에 흥미를 갖는다.	3.48	2.83	
65	봉대를 적절하게 면안하게 감아준다.	2.72	2.79	
67	의료 기계를 능숙하게 다룬다.	3.52	3.31	
		Mean=	3.56	3.41
		S. D=	0.663	0.669
				t=0.503
				p>0.05

치료영역의 “투약을 정확하게 한다” (4.47)이고 2위
도 역시 치료영역의 “의사의 처방을 신속하고 정확하
게 시행한다” (4.46)로 나타났다.

한편 pt.의 문항별 평균 의견척도 (표 15) 3.5 이상
의 문항의 순위를 보면 12개 문항중 신체적 안위영역

1개 문항, 관찰 및 조절 영역-4개 문항, 심리 간호
영역-3개 문항, 그리고 치료 영역-4개 문항으로 1
위와 2위는 Ns.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
서 가설 1은 전적으로 긍정되었다.

<표 14.> Ns.의 역할인식이 매우 높은 역할의 순위(Mean value score 3.5 이상)

순 위	문항 번호	간호역할	간호영역				중요도 평균치
			신체적 안 위	관찰및 조 절	사회심리 간 호	치 료	
1	4	투약을 정확하게 한다.				√	4.77
2	33	의사의 처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한다.				√	4.46
3	13	병상 기록을 정확하게 한다.		√			4.42
4	26	무균법을 엄중하게 다룬다.				√	4.40
5	38	근무 교체하면 먼저 환자상태를 파악한다.		√			4.16
6	2	T.P.R.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			3.92
7	42	언제나 친절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여 준다.			√		3.87
8	6	수시로 관찰하고 의사에게 보고한다.		√			3.85
9	24	수술실, 엑스선과에 보낼때 준비를 잘 한다.		√			3.81
10	14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협조해 주기 바란다.			√		3.74
11	36	증상에 대한 공포를 제거한다.			√		3.72
12	35	섭취량과 배설량을 정확히 기록한다.		√			3.70
13	25	환자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준다.			√		3.64
14	9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은 다음 결과를 알아본다.		√			3.61
15	50	퇴원후의 치료에 관해서 설명해 준다.				√	3.60
16	56	환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표현하게 한다.			√		3.52
17	67	의료기계를 능숙하게 다룬다.				√	3.52
18	39	항상 미소로 대해 준다.			√		3.51

<표 15.> Pt.의 역할 기대가 매우 높은 간호역할의 순위(Mean value score 3.5 이상)

순 위	문항 번호	간 호 역 할	간 호 영 역				중요도 평균치
			신체적 안 위	관찰및 조 절	사회심리 간 호	치 료	
1	4	투약은 정확하게 한다.				✓	4.53
2	33	의사의 처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한다.				✓	4.38
3	6	수시로 피로움을 관찰하고 곧 의사에게 보고 해준다.		✓			4.07
4	13	병상 기록을 정확하게 한다.		✓			4.00
5	2	T.P.R 및 B.P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			3.97
6	42	언제나 친절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여준다.			✓		3.93
7	50	퇴원후의 치료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	3.84
8	26	무균법(철저한 소독법)을 엄중하게 다룬다.				✓	3.82
9	39	항상 미소로 대해 준다.			✓		3.79
10	38	근무 교체하면 먼저 환자상태를 파악한다.		✓			3.75
11	25	환자가 하는 말을 주의깊게 들어준다.			✓		3.62
12	61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항상 고려한다.		✓			3.57

<표 16.> Ns.의 역할인식이 매우 낮은 간호역할의 순위(Mean value score 1.99 이하)

순 위	문항 번호	간 호 역 할	간 호 영 역				중요도 평균치
			육체적 안 위	조절및 관 찰	사회심리 간 호	치 료	
1	49	신경질이나 엄살을 잘 받아 준다.			✓		1.59
2	53	뽀손질을 잘 해 준다.			✓		1.83
3	10	입퇴원수속 절차를 잘 도와 준다.			✓		1.94

<표 17.> Pt.의 역할기대가 매우 낮은 간호역할의 순위(Mean value score 1.99 이하)

순 위	문항 번호	간 호 역 할	간 호 영 역				중요도 평균치
			신체적 안 위	관찰및 조 절	사회심리 간 호	치 료	
1	53	뽀손질을 잘 해 준다.			✓		1.44
2	64	전체 오락에 참여하게 해 준다.			✓		1.45
3	32	개인의 종교를 존중하며 필요한 도움을 청해준다.			✓		1.50
4	66	옷갈아 입는 일을 잘 도와준다.			✓		1.60
5	8	등 맞싸-지를 시원하게 자주 해 준다.			✓		1.65
6	49	신경질이나 엄살을 잘 받아준다.			✓		1.65
7	21	개인적인 문제를 이해해 주고 관심을 보인다.			✓		1.79
8	3	치료 받을때 병풍으로 가리워 준다.			✓		1.85
9	30	침상에서 일어날 때와 누울때 잘도와준다.	✓				1.93
10	46	병원에서 시간 보내는데 적당한 오락이나 껌 입을 마련해 준다.			✓		1.93
11	45	개인의 기호를 잘 파악한다.		✓			1.94
12	29	시사, 취미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		1.98

<표 18.>

Ns.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간호역할
(백분위 빈도 18.0% 이상)

순 위	문항 번호	간 호 영 역	간 호 영 역				N=203 No.(%)
			신체적 안 위	관찰및 조 절	사회심리 간 호	치 료	
1	31	상처 붕대를 자주 살펴 본다.		√			67(33.0)
2	49	신경질이나 엄살을 잘 받아준다.			√		64(31.5)
3	53	뽀 손질을 잘 해 준다.			√		46(22.7)
4	29	시사, 취미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		39(19.2)
5	10	입퇴원 수속 절차를 잘 도와 준다.			√		37(18.2)

<표 19.>

Ns.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간호역할
(백분위 빈도 19.0% 이상)

순 위	문항 번호	간 호 역 할	간 호 영 역				N=203 No.(%)
			신체적 안 위	관찰및 조 절	사회심리 간 호	치 료	
1	64	전체오락에 참여하게 해 준다.			√		44(21.7)
2	10	입원 수속 절차를 도와준다.			√		42(20.7)
3	49	신경질이나 엄살을 잘 받아준다.			√		39(19.2)
4	66	옷 갈아 입는 일을 잘 도와준다.	√				39(19.2)

<표 20.>

Pt.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간호 역할
(백분위 빈도 18.0% 이상)

순 위	문항 번호	간 호 역 할	간 호 영 역				N=203 No.(%)
			신체적 안 위	관찰및 조 절	사회심리 간 호	치 료	
1	3	치료 받을 때 병풍으로 가리어 준다.			√		49(24.1)
2	7	입원시 환자나 보호자와 인사를 나눈다.			√		48(23.6)
3	49	신경질이나 엄살을 잘 받아 준다.			√		46(22.7)
4	8	등 맞사-지를 시원하게 자주 해 준다.	√				45(22.6)
5	11	치료의 순서를 미리 설명해 준다.			√		45(22.6)
6	53	뽀 손질을 잘해 준다.			√		45(22.6)
7	29	시사, 취미.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		41(20.2)
8	30	침상에서 일어날 때와 누울때 잘 도와준다.	√				39(19.2)
9	45	개인에 기호를 잘 파악한다.		√			39(19.2)
10	5	일상 필요한 물품을 챙겨 준다.	√				38(18.7)
11	66	옷 갈아 입는 일을 잘 도와준다.	√				38(18.7)
12	46	병원에서 시간보내는데 적당한 오락이나 게임 을 마련해 준다.			√		37(18.0)

2. Ns.의 평균 의견척도가 매우 낮은 문항(1.99이하)의 순위를 보면 (표 16) 사회심리 간호영역에서만 3개 문항이 나왔다.

한편 Pt.의 역할기대가 매우 낮은 반응을 보면 (표

17) 12개 문항중 신체적 안위영역이 3개 문항, 관찰및 조절영역이 1개 문항, 사회심리 간호영역이 8개 문항이었으며 치료영역의 간호역할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위는 "뽀손질을 잘 해 준다"로 가장 낮고

2위는 "전체오락에 참여하게 해 준다"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전적으로 부정되었다.

3. Ns.의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간호역할"(표 18)을 순위로 보면 [raw score 37 (18.0%)이상] 5개 문항 중 1개의 관찰 및 조절영역, 4개의 심리 간호영역의 문항으로 나타났다.

한편 Ns.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간호역할"(표 19)의 순위는 4개 문항 중 심리 간호영역이 3개 신체적 안위영역이 1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3을 부

정하는 데 뒷받침 하고 있다. Pt.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간호역할을 보면(표 20) 12개 문항 중 관찰과 조절영역인 "개인의 기호를 잘 파악한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체적 안위영역과 사회심리 간호영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Pt.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간호역할"(표 21)을 보면 18.8% 이상 19개 문항 중 신체 안위 영역이 11개 문항 그리고 사회심리 간호영역이 8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의 부정을 강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

<표 21.>

Pt.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간호역할
(백분위 빈도 18.0% 이상)

순 위	문항 번호	간 호 역 할	간 호 영 역				N=203 No.(%)
			신체적 안 위	관찰및 조 절	사회심리 간 호	치 료	
1	32	개인의 증고를 존중하며 필요한 도움을 준다.			√		75(36.9)
2	53	꽃 손질을 잘해 준다.			√		71(35.0)
3	66	옷 갈아 입는 일을 잘 도와준다.	√				66(32.5)
4	64	전체 오락에 참여하게 해 준다.			√		64(31.5)
5	8	등 마사지—지를 시원하게 자주 해 준다.	√				62(30.5)
6	49	신경질이나 엄살을 잘 받아 준다.			√		62(30.5)
7	30	침상에서 일어 날때와 누울 때 도와준다.	√				55(27.1)
8	46	병원에서 시간보내는데 적당한 오락이나 게임을 마련해 준다.			√		55(27.1)
9	21	개인적인 문제를 이해하려고 관심을 보인다.			√		51(25.1)
10	29	시사, 취미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		49(24.1)
11	47	손톱, 발톱, 머리, 면도 등 용의 단정하도록 도와 준다.	√				44(23.1)
12	27	번기를 준비하여 편리한 곳에 놓아 준다.	√				43(21.7)
13	1	몸 청결에 힘쓴다.	√				43(21.7)
14	3	치료 받을 때 병풍으로 가리워 준다.			√		42(20.7)
15	23	자주 베크를 다시 만져주고 편안하게 눕혀준다.	√				40(19.7)
16	44	구강 위생에 관심을 둔다.	√				40(19.7)
17	54	실내 온도나 환기 조절에 힘쓴다.	√				40(19.7)
18	37	밤을 잘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				38(18.7)
9	51	일상 필요한 물품을 챙겨 준다.	√				37(18.0)

D. 전체 간호 제도에 따르는 신체적 안위간호 영역과 학력별로의 Ns.의 사회심리 간호영역의 평균 의견척도.

1. 전체 간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특정병원의 신체적 안위간호 영역의 평균 의견척도 (표 22)는 Ns. 2.90 Pt. 2.53으로 보통 수준의 반응을 보였으며 Ns.의 역할인식과 Pt.의 역할기대 간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5는 전적으로 부정되었다.

표 22. 전체 간호를 제도화한 특정병원의 신체적 안위 영역에 대한 평균 의견척도

	Ns.	pt.
N	49	49
M	2.90	2.53
S. D	0.798	0.839

t=2.242
p<0.025

〈표 23.〉 학력별로 본 Ns.의 사회 심리 간호 영역의 평균의견척도

	대 학	전문학교·기타
N	60	143
M	2.40	2.56
S. D	0.605	0.602

t=0.316
p>0.1

2. 학력별로 본 Ns.의 심리 간호영역의 의견척도를 보면 (표 23) 대학 졸업 간호원이 2.40으로 비교적 낮

〈표 24.〉

Ns.와 Pt.의 불합치도의 범위

간 호 영 역	문항수	불합치 최대 가중 차		총 점 평 관		표 준 편 차		t	Pvalue		
		점	수	Ns.	Pt.	Ns.	Pt.				
전체 간호 영역	67	+335	-335	+130	-195	205.1	191.65	38.6	47.96	3.244	p<0.05
신체적 안위	22	+110	-110	+41	-81	62.5	56.6	15.65	18.75	2.093	p<0.01
관찰 및 조절	16	+80	-80	+25	-46	55.2	48.2	8.25	11.45	2.268	p<0.025
회사 심리 간호	19	+95	-95	+44	-50	47.6	47.0	11.55	13.45	0.148	Ns.
치 료	10	+50	-50	+23	-35	37.96	33.1	6.55	7.63	1.509	Ns.

Fig 1. 신체적 안위영역의 Ns.-Pt.의 불합치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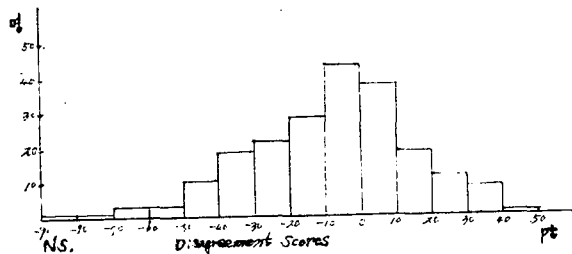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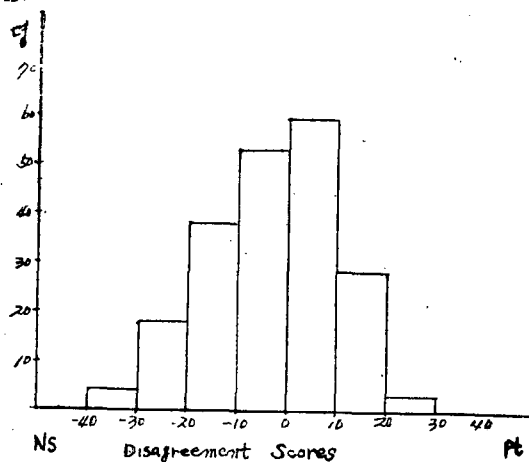


Fig 2. 관찰과 조절 영역의 Ns.-Pt.의 불합치도의 분포



으며 전문학교 수준 졸업간호원은 2.56으로 보통 수준이나 양집단간의 차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6은 부정되었다.

E. 불합치도(不合致度)의 범위와 분포

각 Pt.의 응답총점에서 담당 Ns.의 응답 총점을 뺀 불합치도는 표 24와 도(fig) 1-4와 같이 신체적 안위 영역에서 Ns. 128 (63.1%), 관찰 및 조절 영역에서 Ns. 113 명 (55.7%), 심리 간호 영역에서 Ns. 117 (57.6%) 그리고 치료 영역에서는 Ns.115명 (56.2%)이 Pt.보다 실제로 얻어진 총점이 높았다.

Fig 3. 사회심리 간호 영역의 Ns.-Pt.의 불합치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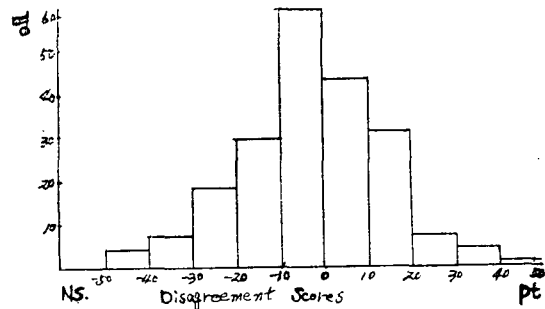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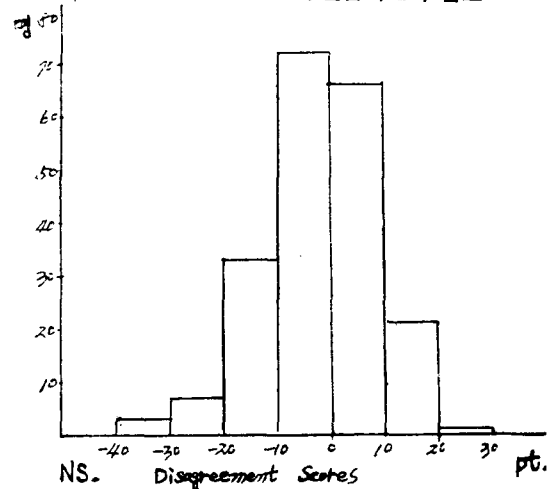


Fig 4. 치료영역의 Ns.-Pt.의 불합치도의 분포



IV. 논 의

신체적안위 간호 영역에서 Ns.의 역할인식과 Pt.의 역할 기대와는 유의한 차이($t=2.800, p<0.01$)가 있어 양집단간에는 다소간의 역할 갈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 의견척도는 Ns.-2.84, Pt.-2.49로서 환자의 신체적 안위 간호영역의 의견척도가 높게 나타난 White (1972)의 연구결과 및 양집단의 의견척도가 보통보다 높게 나타난 Whiting(1958)의 연구결과와 비교가 된다. 문항별 의견척도가 아주 높은 것은 Pt.의 12개 문항중 신체적 안위 간호 영역이 1개 문항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집단의 전반적인 건강 개념상의 문제이기도 하며 과중한 치료 업무 때문에 이 영역이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방, 강(1970)의 간호 업무 실태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자적인 간호 업무는 전체업무량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병원제도 자체에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박(1970)은 조기이상을 촉구하는 간호를 통해서, 그리고 한(1972)은 안위 대책 간호를 통해서 수술후 동통을 경감시켜 회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Hart와 Rohweder(1959), 그리고 White(1972)는 환자의 심리적 지원은 적절한 신체적 안위 간호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주장 했듯이 인간의 기본요구 중에서 자연인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요구 해결은 사회정서적 요구 충족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다. Guerrieri(1968)가 반신불수 환자의 적절한 체위에 관한 기본지식의 결여를 지적 했듯이 일상간호업무의 가치의식에 앞서서 간호의 기본지식의 결여와도 관계가 있다면 교육의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Pt.가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았던 간호역할중 신체안위 간호영역의 4개 문항은 현 간호 체제상 가족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원의 도움이 필요없거나 전문적 간호원의 역할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사항은 전체간호를 제도화한 특정병원의 Ns.와 Pt.의 신체적 안위 간호의 역할인식과 역할기대간에 차이가 있으며 ($t=2.242, p<0.025$) 평균 의견척도가 보통 수준(Ns.-2.90, pt.-2.53)에 불과한 것은 제도 개선이 환자에게 베풀어지는 신체적 안위간호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 제도를 운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식구조는 구태 의연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심리 간호영역의 역할인식과 기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758, p>0.05$) 즉 Ns.의 역할인

식과 역할기대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적 간호의 내용에서 볼때는 특히 심리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비해 양집단의 평균 의견척도의 평균이 보통수준(Ns.=2.71, pt.=2.51)에 불과한 것은 Pt.의 경우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간호원의 전문적 간호를 기대하지 않고도 해결되거나 Nehring 등(197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를 쉽게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환자심리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Ns.의 의견척도가 아주 높은 문항은"검사과 치료에 대한 설명" "공포감 제거"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는 일" 등으로서 인간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Ns.의 의견척도가 아주 낮은 3개 문항을 보면 대체로 가족이나 비전문직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 들이다. Pt.의 문항별 의견척도는 "친절하고 진실한 태도" "미소"의 요구가 가장 높아 이것은 의사소통의 섬블인 표정과 행동을 대화 이상으로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King(1968)이 역설한 바와 같이 간호과정의 핵심은 낯설은 사람과의 원만한 대인관계의 성립이라고 했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 Pt.의 의견척도가 매우 낮은 12개 문항중 8개 문항이 사회심리 간호영역인데 사실상 무가치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또는 무형적인 것이어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인지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조사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Pt.가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았던 간호역할중 "개인의 비밀보장"과 "인사성"이 으뜸으로 나타난 것은 문화적 배경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리간호영역에서 보통 수준의 의견척도로 나타난 것은 관찰 및 조절영역에서 양집단의 평균 의견척도가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며 일반적으로 간호원은 환자의 표재적 문제 (overt problems) 해결에 더 관심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1972)은 도구적기능(instrumental function)과 감정적 기능(expressive function)이 원할히 이루어 질때 간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간호는 감정의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화시켜 주는 감정적 기능이 1차적 기능으로 되어야 하고 도구적 기능은 2차적 기능이 되어야 하며 도구적 기능을 하는 사람이 감정적 기능의 가치를 인정할 때 효과적이라고 했으며, Abdellah 등 (1967)은 기술, 지혜, 동정 및 태연 자약생을 겸비한 인간관계 즉 인간이해가 기본이 되며 Abdellah와 Levine(1957)은 환자의 개별적인 배려와 정신적인 성숙을 위한 간호를 강조한 바와 같이 인간을 환경의 일부로 볼때 입원치료 간호중의 불안과 긴장의 해소는 건강회복의 기본요소가 되는 것이다.

학력별로 본 Ns.의 심리 간호영역의 의견척도에서차의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것과 ($t=0.316, p>0.1$) 대학 졸업 간호원의 평균의 견척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2.40)에 불과한 것은 실무에서 환자중심의 문제 해결능력이 미숙한 것과 원리와 실체가 불합치(不合致)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실무경력이 짧으며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보아 교육의 효과와 간호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곤란하였다. 양집 단간의 관찰 및 조절영역의 간호역할의 인식과 역할기대는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1.238, p>0.05$). 양집 단의 의견척도가 비교적 높은 것과(Ns.—3.44, Pt.—3.19) Ns.의 문항별 의견척도가 매우 높은 18개 문항중 관찰 및 조절영역에서 8개 문항이 나온 것은 일상업무가 이 영역에 다분히 집중하고 있으며 상당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료영역에서 Ns.의 역할인식과 Pt.의 기대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t=0.503, p>0.5$). 병원 간호제도가 시작된 이후 철저하게 받아 드린 유형적이며 상당한 책임성을 지닌 간호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양집 단의 평균 의견척도가 매우 높은 반응(Ns.—3.56, Pt.—3.41)을 보였는데 문항별 의견척도를 보면 Ns.와 Pt.의 수위가 “투약을 정확하게 한다”이며 다음은 “의사의 처방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한다”로 같은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대화가 의사의 기능 중심에서 발달해 왔으며 환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모든 직원이 같은 목적하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며 현실적으로 간호의 일차적인 업무수행은 거의 완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율성이 가장 적은 진료보조 활동이 간호의 본체가 되고 있다면 앞으로 간호 이론을 정립하는데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임상 간호역할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간호원의 역할 인식과 환자의 역할기대의 차이를 규명하여 간호교육과 임상 간호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 신체적 안위간호, 관찰과 조절, 사회심리간호 및 치료의 4개 영역으로된 67항의 간호역할을 선택하여 서울 시내 11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 203명과 환자 203명을 대상으로 1973년 7월 부터 12월 까지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적 안위 간호영역에서 간호원의 역할인식은 환자의 역할기대보다 높았다($t=2.800, p<0.01$). 그리고 평균 의견척도는 간호원은 3.84로 보통 수준이고

환자는 2.4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간호원의 인식이 아주 높은 (평균의 견척도 3.5이상) 문항 즉 신체적 안위 간호 역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전체간호를 제도화한 특정병원의 간호원과 환자의 신체적 안위간호의 평균 의견척도는 Ns.—2.90, Pt.—2.53로 보통수준이며 간호원의 역할인식은 환자의 역할기대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보였다($t=2.242, p<0.025$).

3. 관찰 및 조절영역의 간호원의 역할인식은 환자의 역할기대와 거의 일치했으며($t=1.238, p>0.05$) 양집 단의 평균 의견척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Ns.—3.44, Pt.—3.19).

4. 사회심리 간호영역의 간호원의 역할인식과 환자의 역할 기대와는 차이가 없었으며 ($t=0.758, p>0.05$), 평균의견척도는 보통수준 이었다(Ns.—2.71, Pt.—2.51).

5. 학력별로 본 대학 졸업 간호원과 전문학교 수준 졸업 간호원의 사회심리 간호영역의 역할인식에 있어서 차의 유의도를 보이지 않았다($t=0.316, p>0.1$).

6. 치료영역의 간호원의 역할인식과 환자의 역할기대와의 차의 유의성이 없었으며 ($t=0.503, p>0.05$), 평균 의견척도는 간호원이 매우 높은 편이고 (3.56) 환자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3.41). 치료영역의 10개 문항별 의견척도는 모두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편이었다.

References

1. Abdellah, F. & Levine, E. Effect of nurse staffing on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Hospital Monograph, Series No. 4, Chicago,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1958.
2. Abdellah F. & Levine, E. "Polling patients and personnel, Part I, what patients say about their nursing care." Hospitals, 31: 44-48, 1957.
3. Abdellah, F. & Others. Patient centered approaches to nursing. Macmillan, New York, 1967, pp.39-41.
4. Bender, Barbara L.A. Test of the effect of nursing support on mothers in labor. In ANA Clinical Conferences, 1967,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8, pp. 171-179.
5. 전 산초. 간호교육자가 본 문제와 과제. 대한간호 제 11권 제 6호 1972년 9-10월, pp.33-34.
6. Guerrieri, B.O. Survey of the knowledge of the nurse in direct care services concerning proper bed positioning of patient with hemiplegia. Nur.

- Res. Vol. 17, No. 2pp. 157-159.
7. Hart, B.L. & Lohweder, A.W. Support in nursing. *AJN*, Vol. 59, 1959, pp. 1393-1401.
 8. Hendersen, V. 간호의 기본원칙. *대한간호* 제 8 권 제 3 호, 1939년 6월 p. 52.
 9. 한운복. 안위대책 간호가 수술 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제 3 권 제 1 호, 1972, pp. 85-95.
 10. King, Imogeue M.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nursing. *Nur. Res.* Vol. 17, No. 1, 1968.
 11. 김영매, 한운복. 임상간호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 3 권 제 1 호, 1972, pp. 102.
 12. 김순자. 임상간호제도 개선을 위한 일조사연구. *대한간호* 제 12 권 제 5 호, pp. 73-82.
 13. 김조자. 수술후 심리간호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간호학회지* 제 2 권 제 1 호. 1971, p. 97.
 14. 이귀향. 우유자, 서문자. 임상간호원에 대한 연구조사. *간호학회지* 제 3 권 제 3 호. 1973, pp. 78-94.
 15. 이귀향. 한국 간호 사업의 전망. *대한간호* 제 11 권 제 4 호, pp. 22-25.
 16. Nehring, Virginia and Grech, Barbara, Patient's evaluation of their care. Why they don't complain. *Nursing Outlook* 21;317-321, May 1973.
 17. 방용자. 간호원의 역할 인식과 환자, 의사 행정가의 역할기대와의 관계.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제 18집, 1970, pp. 345-356
 18. 방용자. 강홍순. 간호업무실태분석 및 합리적인 병실관리 개선방향. *대한간호학회지* 제 1 호, 1970. pp. 111-132.
 19. 박정호. 조기 이상이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간호* 제 9 권 제 3 호, 1970. pp. 22-27
- White, Marguerite B. Importance of selected nursing activities. *Nursing Research*, Vol. 21, No.1, 1972. pp. 4-13
- Whiting, J.H. Nurse-patient relationship and the healing process. A progress report to the American Nurses Foundation, June 1955 to Dec. 1957, Pittsburgh. 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 Leech Farm Road, 1958.

Abstract=

**Value orient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role perception and patient's expectation
on selected routine nursing activities.**

Yoon Bok Hahn · Soon Ja Kim · In Ja Lee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Medical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College, Koryo University>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an attempt to; 1) measure value orientation of nursing activities, 2)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role perception and patient's expectation, and 3) evaluate the pattern of nursing education and nursing service administration.

203 hospitalized adults and 203 professional nurses from 11 general hospitals in Seoul during the period of July to December 1973 were tested according to questionnaire based on 4 categories of clinical nursing activities, 1) physical care, 2) observation and control, 3) psycho-social care and 4) therapeutic measure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Nurses were more concerned than patients in the physical care category.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vealed by $p < .01$ level ($t = 2.800$). Mean value score of nurses was average (2.84), and mean value score of patients was relatively low (2.49). None of the physical care category questionnaire items were over 3.5.
2. Respondents from hospitals of total care system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hysical care category by $p < .025$ level. ($t = 2.242$). Mean value score of both group were average level (nurse 2.90, patient 2.53), nurses showed higher concern.
3. Difference between nurse's role perception and patient's expectation in observation and control category was revealed non-significance by $p > 0.05$ level ($t = 1.238$). Mean value score of both group revealed relatively high (nurse = 3.44, patient 3.19).
4. Difference between nurse's role perception and patient's expectation in psycho-social care category revealed non-significance by $p > .05$ level ($t = 0.758$), Mean value score of both group revealed average level (nurse = 2.71, patient = 2.53).
5. Non-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ed between B. S. N. and diploma nurse's role perception in the psycho-social care category by $p > 0.1$ level ($t = 0.316$).
6. Difference between nurse's role perception and patient's expectation in the therapeutic measures category revealed non-significance by $p > 0.05$ level ($t = 0.503$). Nurses showed high concern by mean value score 3.56 level and patients relatively high by 3.41. All items of this category revealed very high or relatively high value score.